

요 즘의 세태를 보면,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남녀 평등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다. 오히려 가정 내에서는 힘의 축이 여성 쪽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남자들의 하소연이 많아지고 소외된 남성들이 밖으로 돌며, 심지어는 신경 정신과에까지 상담이 줄어 있다. 이곳 저곳 상담실에는 남자들이 더욱 많아졌으며, 이혼 신청의 비율도 남성 쪽보다는 여성 쪽이 더 많은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줌마 신드롬이 유행할 정도로 여성들의 파워는 대단해졌다. 정치인들도 여성 유권자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사업가 역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을 만들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가정 내에서도, 소외된 남성들 즉 아버지의 설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목소리도 작아져 간다. 자녀들은 거의 어머니 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직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위축되고, 50대가 되면 정년 퇴직 내지는 명퇴 걱정을 해야 하고, 모아 둔 재산이 없으면 마음도 몸도 자꾸만 소심해진다.

그 반대로 여성들은 자녀들을 등에 업고 목소리를 점점 키우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간헐기가 커졌네, 간헐기가 부어 터졌네 하는 말은 시쳇말이 되어 가고 있다.

가끔 토크쇼에서 아버지에 대해 토론하는 패널들도 아버지의 힘을 키우자는 말보다는 아내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잘해 주고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옛날 남성의 위상과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예전의 남성들은 힘 그 자체였다. 밖에서는 힘과 실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집안에서는 아내나 아이들의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자리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엄격하고 어려운 존재였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했다. IMF를 맞아 명퇴가 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져 가슴 아파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을 맛보며 자살까지 하는 가정들이 있었다. 거리에는 직장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도 갈 수 없는 노숙자들이 들끓는다.

그들의 가슴 속은 만신창이가 되어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파멸만이 눈앞에 있었다. 생명의 전화에도 남자가 더 많이 걸고 상담 창구에도 남자들이 밀려드니, 그야말로 남자들의 수난 시대다.

산부인과 의사를 20여 년간 하다 보니 시대 변천이 한눈에 그려지는 듯하다. 옛날에는 남자들의 바람기를 막으려고 많은 여성들이 이쁜이 수술이라는 걸 했었다. 계

를 조직하여 너 나 할 것 없이 유행한 적도 있었다.

세월이 갈수록 임신해서 출산하는 과정이 참으로 많이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들도 같이 임신한 것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여자들을 배려하는 것을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 얼굴이 뜨거울 정도이며 사랑을 표현하는 데도 주저함이 없다.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 출산으로 질이 변형될 것을 우려해 아예 제왕절개 수술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유방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유도 분유로 대신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가정 내에도 어찌 보면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기적인 삶이 지배적인 것 같다. 아직도 40대, 50대에서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변화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여 힘겨워 하는 남성들이 적지 않다.

어느 날, 이 시대의 간 큰 남자를 보았다. 전화선으로 들려 오는 여인의 목소리는 크고 걸걸했다.

"선생님,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요. 지금 가면 수술을 받을 수 있는가요?"

전화를 끊고 10분도 되지 않아 도착한 그녀는,

"이쁜이 수술을 하러 왔는데요, 킨짜꾸(돈주머니처럼 질 입구가 팽 조인다는 뜻의 은어) 같이 만들어 주세요. 남편이 바람을 너무 피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만나는 여자는 1만 명에 한 명 꼴이라는 킨짜꾸래요. 자기는 그 여자랑 절대 헤어 질 수 없습니다."

그녀는 노기를 띠고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남편은 저와도 이혼은 하지 않고 그 여자도 유부녀이니 결혼할 여지가 없다, 그 여자는 어찌나 성욕이 강한지 애인을 셋이나 두고 있으며 한 남자에게 만족할 수 없는

바람 난 남편

유 희



한 세레나데

산부인과 원장



여자다 라고 하면
서 그래도 그 여자
와의 관계를 청산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한
마디로 양다리를
걸치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여
자와 관계할 때의
느낌과 행위 때의
모습을 아내한테 적
나라하게 이야기한
다는 것이었다.

“저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과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대
학과 직장에 다니고
있고 곧 결혼을 앞
두고 있는데 아버지
 없다고 무시나 당하
지 않을지, 이혼한

가정의 자식들이라고 거절당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어
서 이혼도 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예전엔 너무 가난해
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출산을 한 관계로 얼마
나 엉망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못해 이렇게 병
원을 찾았습니다.”

여자는 원한에 사무쳐 온몸을 떨고 있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독선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
로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일삼으며 거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남자들을 보게 된다. 마누라와 복어는 사
흘에 한 번씩 패 주어야 한다든지,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
는 땅이라든지...

그러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부부 사이
에 권력이 어디 있겠는가. 이기고 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겠는가.

가끔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지긋은 친구들이 질문
을 한다. 진짜 키파쿠가 있느냐고...

사람마다 성욕의 차이도 있고 성기의 차이도 있다. 남
성 성기의 크기나 기능이 다 다르듯 여성도 성기의 크기
나 기능의 차이가 많다.

물론 상대적인 차이가 많을 수 있고 환경, 나이, 생활
의 여유 등 외부적 변화에 따라 변수가 많을 수 있지만,
결혼 때 속궁합을 중요시 한 까닭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이다.

서로 조건이 너무 다른 경우, 즉 남편은 너무 큰데 비
해 여성의 성기는 너무 작다든지, 또 그 반대인 경우는 결
혼 생활 자체가 힘들다. 이런 경우는 외부적인 조건에 속
한다.

결혼할 당시에는 서로 속궁합이 잘 맞았던 부부들도
나이가 들면서 불평이 늘고 불만이 많아지고 이혼까지 가
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혼한 부부들의 속사정을 알고 보면 성생활의 불일치
가 원인인 경우가 대다수였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
도 성생활의 불일치가 애초의 원인이 되어 어떤 문제가
돌출 되었을 때 악감정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
다. 그렇다. 부부 생활의 근본은 건강한 성생활임을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도 현대 생활의 스트레스와 함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욕도 줄어들고 의욕도 상실하게 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변화가 훨씬 심하다. 임신, 출산, 갱년기
등으로 인한 생식기 변화 또한 상당하다.

특히 출산으로 인한 질 근육 손상의 정도는 개인 차이
가 많다. 난산을 했다든지 거대아를 낳았다든지 그 외에
도 질 근육의 손상을 가져오는 원인은 많다.

긴 결혼 생활, 단조롭고 밋밋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
어서, 변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외도를 했노라고 고백하는
남성들이 많다. 요즈음은 여성들의 외도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이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키파쿠가 과연 있는
가.

남성의 페니스를 감싸 쥐는 질 근육이 강한 여성을 일
본말로 ‘키파쿠’라고 한다. 돈주머니처럼 꼭 조인다는 뜻
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랍 쪽에서는 ‘카바자’, 우리 나라에서는 ‘어우동’
등등 각 나라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다 여성의 강한
질 근육에 대한 선망이 대단하며 관심도 많다.

남녀의 성 표현은 한도 끝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성들 최대의 관심은 매력적인 여성이며 성을 빼고는 남
과 여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매력
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
다.(02-3444-0318) 72